2016년 전북도정 최고 성과

옥정호 갈등 해결 · 왕궁악취 저감

2위 탄소산업육성법 제정 3위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 4위 전북투어패스 도입

전북도민이 직접 뽑은 2016년 전북도정 최고 성과는 '옥정호 갈등해결 및 왕궁악취 획기적 저감'으로 나타났다.

도민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는 지역간 갈등 해결문제나 고질적 악취 해소 같은 일상생활환경 문제가 도민들에게는 다른 무엇보다도 크게 와 닿은 결과로 풀이된다.

전북도는 지난 28일부터 '2016 전북도정 최고의 성과를 뽑아 주세요'라는 주제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2016년 전북도정 10대 성과에 대한 도민 선호도 조사를 1월 4일까지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북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성과를 3개까지 선택 가능하도록 했다.

선호도 조사에는 도민 3,454명이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도민들은 지역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할 성과 1위(992표, 24.3%)로 옥정호 수변개발을 둘러싼 임실군과 정읍시간 갈등에 도의 적극적인 중재를 통한 극적인 해결과 익산 왕궁지역의 고질적인 악취문제 해결에 가장 높은 점수를 줬다.

2위는 '탄소산업육성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 추진계기 마련(859표, 21.1%)', 3위는 '전국 최초,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시행(769표, 18.9%)', 4위는 '전국 최초, 전북투어패스 도입(716표, 17.6%)'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 3대 핵심과제인 탄소산업, 삼락농정, 토탈관광에 대한 성과가 각각 2, 3, 4위를 차지해 도민들의 도정 핵심과제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민들은 도정핵심과제 추진이 전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새만금 국제공항 국가계획 반영(265표, 6.5%)', '미륵사지유물전시관 및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181표, 4.4%)', '민간육종연구단지 준공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기업지원시설 입주(129표, 3.2%)', '2017년도 국가예산 사상 최대인 6조 2,535억원 확보(87명, 2.1%)'가 그 뒤를 이었다

이번 선호도 조사는 도민의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관련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시행했다.

도는 2016년 10대 성과에 대한 도민의 의견을 반영해 '탄소산업클러스터 및 초고강도 탄소섬유 개발본격화',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본격실시 및 생생마을 조성', '전북투어패스 등 전북형 토탈관광기반 구축', '새만금 국제공항 타당성조사 용역 실시', '농생명산업 융복합벨트 구축' 등은 올해 '전라북도 10대 프로젝트'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나머지 사업도 올해 '도정 주요정책'에 빠짐없이 녹여내 성과위주로 도민에게 만족을 주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유년 전라북도 사자성어인 '절실하게 묻고 현실을 직시하자'는 '절문근사(切問近思)'의 자세로 실천하고 소통과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도민과 함께 하면서 도정 현안을 꼼꼼히 챙겨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위안부 할머니의 아픔, 잊지 말자"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 1264차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시민들이 참석하고 있다.

시 · 군과 함께하는 삼락농정 본격 시동

30억원 6~8개 사업 규모 농업인 참여형 '삼락농정 시 · 군특화사업' 추진

전북도가 농업인 참여형 농정거버넌스 체계를 시.군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30억원 6~8개사업 규모로 '삼락농정 시·군특화사업'(이하, 삼락 특화사업)을 통해 '시.군과 함께하는 삼락농정'을 추진한다.

특화사업은 기존 사업신청 방식과 달리 시.군 농정거버넌스에서 지역의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다양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사업계획을 수립, 사업을 공모 신청하는 방식이다.

지원대상 사업은 삼락농정 취지와 부합되는 사업으로 농촌인력지원, 청년농업인 육성, 농촌체험.관광사업과 같이 지역주민 참여.공감형, 농업.농촌 공동체 활성화, 지역의 다수 농업인(주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사업비는 1개 사업당 5억원 이내로 6~8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은 시장.군수와 농업인이 50%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등 마을공동체 등이며 개인, 개인사업자 등 특정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삼락 특화사업은 시.군을 통해 오는 2월 10일까지 공모 신청을 받는다.

강승구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삼락농정의 핵심동력인 농업인 참여형 농정거버넌스가 시.군으로 확산되고, 시군별 농업.농촌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을 농정거버넌스에서 발굴해 신청하는 상향식 사업을 통해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삼락농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3대 핵심시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 삼락농정은 그간 2년 동안 농업인이 참여하는 삼락농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운영협의회와 10개 분과가 연간 47~67회 위원회 활동을 통해 47개사업을 발굴해 143억원을 반영했고 분야별 현안에 대한 논의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도단위 대표 농정거버넌스로 정착했다. /안재용 기자

세계잼버리 유치활동 위한

'외국어 자원봉사자' 모집

16일까지 지원해야… 2월~8월 유치 확정시까지 활동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를 위해 '외국어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세계 162개국 스카우트연맹을 상대로 맨투맨 유치홍보활동 중인 유치단은 언어별 맞춤지원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유치확정시까지 통역활동을 지원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모집기간은 16일까지이고, 활동기간은 2월부터 8월 유치 확정시까지이며, 모집정보는 전북도 홈페이지 및 도내 4개대학 취업 공지란에 게시돼 있다.

세계스카우트 공식언어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아랍어, 스페인어별로 모집하고 대상자 선정 후에는 스카우트활동 및 한국만의 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을 통해 유치현장에 투입하게 된다.

외국어 자원봉사자 대상자들은 세계잼버리 유치활동을 위한 세계스카우트 회원국 방문시 또는 해외 투표권자들의 초청행사에도 통역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SNS 연계한 유치활동 및 투표권자들과의 향후 인적네트워크 구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세계잼버리 주 참가자 및 대부분의 스카우트활동자가 상대적으로 30대 미만임을 감안해, 자원봉사자 역시 비슷한 연령대로 모집한다. /안재용 기자

온누리상품권 월별 할인 구매한도 상향

2월28일까지 30만원→50만원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할인 구매한도가 2월 28일까지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판매한다.

4일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경기침체와 맞물려 전통시장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정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한도 확대는 민생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설 명절을 맞아 서민경제의 터전인 전통시장의 사진진작 및 고객 유입을 촉진하고, 소비진작 효과를 제고하기 위함이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이용고객의 편의제고를 위해 기존 권면금액 5,000원 · 1만원에서 3만원권을 추가해 16일부터 판매할 예정이다.

온라인쇼핑몰(http://onnurimarket.kr)에서는 양질의 지역특산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품목별 실시간 가격비교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고객 대상으로 온누리 전자상품권 증정 이벤트도 실시한다. /안재용 기자

도, '철새 특별방역대책 50일 작전' 시행

전북도가 현재 고창 동림저수지에 머무르는 철새의 이동이 AI 추가발생의 중요한 핵심요소로 판단돼 철새 이동 시기까지 '철새 특별방역대책 50일 작전'을 시행해 추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로 했다.

또한 철새 이동에 영향을 받는 군산.익산.김제.정읍.고창.부안 등 6개 시군에 대해 철새 특별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AI 조기종식을 위해서는 지금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며 "차단방역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방역준수사항 이행 및 경계태세 유지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송하진 지사는 8일째 고병원성 AI 신고가 없음에 따라 위험한 고비를 넘겼다고 밝히며 군.경.농협 등 유관기관 및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로 가능했음을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장 국민의당 통일위 위원장 임명

4일 국회 본관에서 개최된 제66차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양영두 사선문화제전위원장이 통일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됐다.

양 위원장은 흥사단민족통일운동본부 공동대표로서 20여년간 통일운동에 기여해왔다.

통일위원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당연직 당무위원, 중앙위원직을 겸임하게 된다. /안재용 기자

2017 나눔캠페인 기부자

〈장수군 장계면〉

▲중동마을 주민 일동 720,000